

의학정보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제언

A Study of Effective Management of Medical Information

宋浚湧(Jun-Yong Song)*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의학정보의 관리방안 |
| II. 의학정보의 특성과 과제 | 1. 의학정보의 공동수서 |
| 1. 의학정보원중 학술잡지의 높은 비중 | 2. 의학 전문사서의 육성 |
| 2. 의학잡지 가격의 고가화 | 3. 국가문헌 보전도서관 설치 |
| 3. 주제전문 의학사서의 필요성 | 4. 의학전문정보센터의 설립 |
| 4.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발달 | 5. 상호활용 체제의 발전 |
| 5. 의학도서관간의 교류 활발 | 6. 학술잡지의 체계적 평가와 전자출판 |
| 6. 장서 수장공간의 부족 | IV. 결론 |
| 7. 학문분야의 광역화 | 참고문헌 |

초 록

의학도서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의학정보 학술잡지의 고가화, 외국잡지에 대한 선호도, 학술잡지가격의 높은 인상률, 학술잡지 증가에 따른 공간확보 문제 등으로 이는 의학도서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풀어야할 과제이다. 의학분야의 전문지식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주제전문 사서를 육성하여야 하고, 국내 의학분야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학문분야의 광역화에 따라 의학정보가 점차 증가하는데 대한 정보를 수집·축적·가공하기 위한 전략 등을 연구하였다.

Abstract

The Journals of medical libraries are the primary resources of medical library collections, and the majority of them are foreign journals.

Recently, medical libraries have some difficulties in purchasing materials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journal prices and the curtailment in the budget. A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center for controlling Korean medical bibliographies was suggested. This system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users for acquiring materials more effectively.

Key word : medical Library, Medical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 접수일 : 2002. 11. 29 • 최초심사일 : 2002. 12. 10 • 최종심사일 : 2002. 12. 10

I. 서 론

의학정보의 주요정보원은 학술잡지이다. 주요정보원인 학술잡지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의학정보는 기초의학, 임상의학, 건강정보, 보건정보, 간호정보, 의약정보 등 인체 과학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여 다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과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의학정보가 광역화됨에 따라 정보량이 방대하여지는 반면에 관리체계는 정립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로 의학정보의 특수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의학정보를 취급하는 의학도서관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가입된 170여개 기관이 주축이 되어왔다. 이들 의학도서관은 주제분야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1960년대부터 NLMC(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lassification)을 채택하여 단행본에 대한 자료를 분류하면서 나름대로 전문도서관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서량의 증가와 의학정보의 증가로 인하여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이 학술잡지에 대하여서는 분류를 하지 않고 서명별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자료를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관례와 더불어 학술잡지가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관리의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의학용어의 대부분이 희랍어와 라틴어에서 파생되어 영어와는 또 다른 언어이며 용어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용어를 취급하는 의학사서들에게는 전문적인 지식의 함양이 요구된다. 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적으로 국내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중에 의과대학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서는 한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문정보를 어떤 사서들이 취급해야 될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의학정보를 취급하는 의학도서관 현황을 파악해보고, 의학정보관리가 특히 발달되어 있는 미국과 비교하여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발전방향과 의학정보체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처해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전자저널의 등장, 학술잡지의 가격상승, 이용자의 요구의 증가에 따른 예산의 부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이다.

의학도서관에는 학술잡지가 주요 정보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입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없어서 매년 책정되는 예산에 따라 학술잡지 구독종수를 조절-예산이 증가하면 늘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줄이는-해야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또한 전자잡지의 등장으로 권소사업에 가입해서 구독예산을 절약하기를 원하지만 전자잡지를 수용해야하고 있고, 인쇄잡지의 구독충단에 따르는 과월호에 대한 보존대책이 정비되어 있지 않는 등 여러 가

지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고찰을 하였으며 문헌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범위로는 국내 의학도서관과 의학정보에 국한하기로 하였고, 비교대상은 의학정보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상태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의학정보에 관한 선행 연구는 국내에서는 김호배(1985), 이영철(1993), 윤정선(1996), 김혜양(1998), 윤봉자(1998)등에 의한 연구가 있고, 해외에서는 Lovas(1994), Arif, Sibai와 Sulaiman(1998), Penson(1998), Butler(1998), Sittig와 Dhawan(1999), Wilson과 Alexander(1999), Bleic와 Robinson(2000), Morse와 Clintworth(2000), Wiley, Chrzastowski (2001) 등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의학정보관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II. 의학정보의 특성과 과제

의학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선 의학정보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관리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의학정보와 일반주제정보와의 차이점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의학정보원중 학술잡지의 높은 비중

장서의 구성에 있어서 일반도서관은 대체로 단행본의 비율이 높으나 의학도서관은 학술잡지 비율이 높다. 의학문헌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용문헌을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인용빈도가 학술잡지 88.39%, 단행본 9.23%, 기타자료 2.38%로 학술잡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학도서관에서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예산의 대부분이 학술잡지를 구독하는데 소요되고 있다.¹⁾ 미국 대학도서관의 1998/99회계 연도의 자료구입비의 평균을 보면 단행본 구입에 35%를 사용하고 학술잡지 구독에 65%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경우, 80%를 학술잡지에, 20%를 단행본 구입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²⁾ 하버드 County의학도서관의 경우는 단행본 구입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고, 순수 기증에 의존하고 있고, 자료구입비 대

1) 윤구호·이영철, "의학문헌의 계량서지학적 분석", 《圖書館學論集》, 18(1991. 12), pp.61-90

2) ALA, "Library materials budget survey 2000/2001", <http://www.arl.org/scomm/lmbs/lmbs2001.html>, (2002. 10. 5)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제4호)

부분을 학술잡지 구독에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은 2001년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도서구입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자료수집 비율을 알 수 있다. 이 표를 보면, 전체 예산 중 94%가 연속간행물 구독비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이 이와 같이 학술잡지 구독에 치중하고 있다.

<표 1> 2001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도서구입현황

구분		종수	금액	비율
연속간행물	학술잡지	647종	645,619,890	84%
	전자잡지	52종	74,189,637	10%
소계		699종	719,809,527	94%
단행본	동양서	1,566책	14,621,500	2%
	서양서	214책	30,613,130	4%
	Web DB	1종	1,352,422	0.1%
소계		1,781책	46,587,052	6%
합계			766,396,579	100%

2. 의학잡지 가격의 고가화

의학정보는 고가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비가 많이 소요된다. 의학잡지는 판매시장이 한정되어 있고,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가 많이 소요되며 전문성을 가진 정보이기 때문에 잡지가격도 높게 책정되고 있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천연색사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화지의 질이 좋고, 무겁고, 고도의 인쇄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고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학분야의 잡지가격이 어느 정도의 고가인가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미국 출판 시장의 주요분야 잡지에 대한 2001년도 평균가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표 2〉 2001 미국 잡지가격

순 위	주제분야	가 격(\$)	비 고
1	러시아 번역	1,774.85	
2	화학 및 물리학	1,407.47	
3	의학	726.61	
4	수학	559.23	
5	동물학	510.53	
6	기계공학	401.32	
7	심리학	355.63	
8	사회학 및 인류학	197.24	
9	경영 및 경제학	152.79	
10	정치학	136.59	

이 표를 보면, 의학분야의 평균 잡지가격은 \$726.61로서 첫 번째인 러시아어번역잡지와 두 번째인 화학물리학잡지에 이어 세 번째로 고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 주제 분야 학술잡지의 평균 가격인 \$338.23의 두 배에 달한다.

또한 매년 잡지가격의 인상률도 높아서 의학도서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정보과학의 발전과 특히 전자출판으로 편집, 출판, 저장, 배포에 관련된 비용의 절감이 저널의 가격을 인하시키거나-학자들에 의한 자가출판과 같은- 대체 저널이 출현할 것이라고 기대 하였으나 전자출판은 도서관 예산 절감의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전자출판을 하는 출판사들은 인쇄잡지와 전자잡지구독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인쇄잡지구독료의 10-30%를 덧붙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전자잡지만 구독하기를 꺼려하는 도서관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두 형태의 저널을 모두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과거보다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2001년 미국내 잡지 평균 인상률은 8.3%이었으며, 그 중에 의학분야는 순위 7번이며 연 평균 9.6%인상되었다. 가장 많이 인상된 잡지는 러시아 번역관계 잡지로 평균 12.7%, 다음이 정치학 12.3%, 심리학 11.3%, 도서관 정보학 11.0%, 농학 10.6%, 노동 및 산업관계 10.6%, 의학분야 9.6%이다. 30개 분야중 7위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³⁾ 이와 같이 의학잡지가격은 고가이며 인상률도 높고 전자잡지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수집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국내 의학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하는 의학정보는 외국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문헌 이용의 행태에 대한 통계를 보면, 영어 문헌 81.64%, 한국어문헌 13.79%, 독일어문헌 1.82%, 일본어문헌 0.72%, 기타 자료 2.04%순으로 영어권문헌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

3) Albee, Barbara L.; Dingley, Brenda. "U. S. periodical prices-2001". American Libraries, Vol.32, No. 5(May 2001) pp.72-78.

음을 알 수 있고, 학술잡지의 발행국별로 비교해보아도 미국 61.09%, 한국 14.76%, 영국 15.07%로 영어권자료 의존도가 85.84%로 높아 외국문헌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이러한 추세에 비하여 국립대학 의학도서관의 경우 조직체제가 병원이나 대학과 독립된 조직이어서 상호 유기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상호 의존적이다 보니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개 국립대학 의학도서관의 도서비 부족과 관련하여 수익이 있는 대학병원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병원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과감하게 정보수집비에 투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의 표준화 심사기준 자료에서는 대학소속 의학도서관을 병원도서관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3. 주제전문 의학사서의 필요성

정보를 취급하는데 주제전문성을 지닌 의학사서를 요한다. 왜냐하면 의학용어가 대부분 회랍어와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어로 영어와는 또 다른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이를 해독하는 사서가 정보취급을 해야 정확한 정보를 서비스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취급하는 주제전문사서라 함은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 문헌정보학에 대한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한자라고 정의할 때,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 중 이러한 자격에 맞는 사서제도를 도입하기는 의사직에 비하여 치우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의학은 인체의 신비에 대하여 진리를 탐구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학문이며 체계적이고 숙련의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교과과정도 다른 분야에 비하여 장기간의 긴 과정이다. 의학을 전공하기 이전의 예과과정 2년, 본과과정 4년을 거쳐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만 의사자격증이 주어지고, 그나마 개업은 불가능하여 수련의과정 1년 전공의과정 4년을 거쳐야만 독자적인 개업을 할 수 있게끔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학문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사서가 의학정보를 취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따라서 의학사서를 이러한 정보를 습득할 수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성을 가져야만 된다.

4.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발달

의학정보는 생산량이 많아서 2차 자료를 활용하지 않으면 1차 자료를 탐색하는 데 많

4) 윤구호, 이영철, "의학문헌의 계량서지학적연구", 《도서관학논집》, 18, pp.61-90 (1991.12)

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된다. 국내의 의학정보 시스템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통합화되어 있지 않아서 의학연구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에서 구축한 MEDLAR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중에서 대표적인 MEDLINE는 4,600여종의 학술잡지에 대한 기사가 1,100만 건 수록되어 있으며 초록이 대부분 첨부되어 있어서 논문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구중에 3,300종 정도는 전자저널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고, 단행본에 대한 소장위치는 LOCATORplus(전 CATLINE)로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⁵⁾ 이외에도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가 40여 개가 있어서 이용자들이 2차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의학정보는 산발적으로 몇 개 기관이 구축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탐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5. 의학도서관간의 교류 활발

의학정보의 고가로 인하여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의학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의학도서관간의 협력활동은 어느 일반 도서관들간보다도 활발하다. 특히 상호대차부분에서 활발히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NLM에서 주관하는 NN/LM(National Network of Libraries of Medicine)은 미국내 9개의 권역별로 의학도서관간에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DOCLINE을 통하여 미국, 캐나다에 서비스 해주고 있으며 세계 21개 국가의 메들라스센터를 통해 의학문헌에 대한 복사를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해주고 있다.⁶⁾ 한국에서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를 주축으로 공동수서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과 복본 학술잡지 교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이 개발하여 운영하는 MEDLIS를 통한 상호대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외국의 이용자가 한국 문헌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운영체제도 자발적인 협력기관으로 새로운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뒷받침이 따라야 의학정보의 협력체계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6. 장서 수장공간의 부족

의학도서관은 단일 주제도서관이면서도 공간점유율이 다른 종류의 도서관보다 높다. 잡지의 과월호에 대한 제본도서의 공간 점유, 신간 학술잡지의 증가, 출판되는 잡지의 페이지 증가 등의 이유로 공간부족문제에 많은 도서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사서

5) PubMed Help <http://www.ncbi.nlm.nih.gov/entrez/query/static/help/pmhhelp.html>, 2002. 10. 22.

6)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U. S. "Fact Sheet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http://www.nlm.nih.gov/pubs/factsheets/nlm.html>, 2002. 8. 5.

들은 별치하여 저장장소를 넓히거나 새로운 빌딩을 건축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고, 도서와 저널을 별도의 장소에 옮기는 것을 고려한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이용자는 별치도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시간지연을 걱정한다. 학술잡지의 종류가 많고 논문생산이 많아서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이 학술잡지를 많이 구독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최근호를 제본하게 되므로 제본도서가 증가하여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의 장서현황 구성비율을 보면 <표 3>과 같다.

이 표를 보면 전체 15만책 중에서 76%에 해당하는 11만 책이 제본잡지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 3>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장서현황

(2002. 6 현재)

구 분	단행본	제본잡지	합 계	비 율
동양서	9,080책	27,535책	36,615책	24%
서양서	25,578책	88,853책	114,431책	76%
합 계	34,658책	116,388책	151,046책	100%
비 율	23%	77%	100%	

7. 학문분야의 광역화

유전학, 환경공학 등 최근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광역화되고 있다. MEDLINE 데이터베이스도 초창기의 수록 종수는 수백 종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4,600여종이 되는 것으로 보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학도서관의 특징적 사례에 비하여 의학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국내 의학도서관간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문제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Ⅲ. 의학정보의 관리방안

1. 의학정보의 공동수서

의학잡지의 고가화, 높은 잡지가격 상승률, 전자잡지의 이중 구독등 도서관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도서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 의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잡지 종수는, 2002년 8월 현재,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 가입된 의학관련 도서관 171개 기관(대학 51, 병원 92, 연구소 13, 제약회사 10, 기타 5개)에서 구독하는 5,900종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구독중단, 서명변경에 의한 중복, 관련잡지 등을 합친 것으로 실제로 현재 구독중인 순수 의학분야 잡지는 몇 종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불하는 잡지 구독 금액에 비해서 순수하게 구독하고 있는 잡지의 종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의학잡지를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3개 대학과 외국의 주요대학 의학도서관의 잡지구독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1년 학술잡지 구독 종수는 연세대 1,353종, 카톨릭의대 1,103종, 서울대 806종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하버드대학 카운티 의학도서관의 3,000여종에 비하여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또한 국내 주요 3개 도서관간의 1년분의 상호대차통계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의학도서관간의 상호대차서비스로도 원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어서 해외에 신청하는 자료가 40%정도이고, 이종의 45%는 국내에 전혀 없는 것으로 통계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국의 의학잡지를 다 합쳐도 미국의 NLM의 MEDLINE에 수록되는 잡지 4,600종에도 미치지 못한다. 학술잡지가 얼마나 부족한지 짐작이 간다. 또한, 병원도서관의 설치기준에 의한 영남지역의 비교평가 자료에 따르면, 20개 기관중 50% 이상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⁷⁾ 자료의 부족은 곧 재정적인 뒷받침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학의 꾸준한 지원이 절실하다.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하여서는 협동수서가 필요하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회원기관 171개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상호대차시스템, 의학정보생산 등 기본적인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협동수서 체제는 잘 안되고 있다. 값비싼 외국학술지를 구독하고 있는 의학도서관의 실정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 비교적 학술지 구독가격이 비싼 잡지 10종을 추출하여 어느 정도 중복구독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본 결과, 가장 비싼 잡지(\$14,919)인 Brain Research의 경우 9개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음을 볼 때 협동수서를 통하여 이 잡지를 3-4개 기관에서만 구독하고 타 기관은 다음으로 비싼 잡지를 구독하는 즉, 비싼 잡지는 기관간 나누어 구독하면, 값이 저렴한 다른 잡지를 더 많이 구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잡지는 지역적 대표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여타 기관은 상호대차로 이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⁸⁾ 의학분야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잡지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모든 의학도서관이 저렴하게 구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예산을 절감하고, 타 출판사와 비

7) 이덕분, 이영철, "병원도서관 설치기준에 의한 비교평가 -영남지역을 기준으로-", 《한국의학도서관》, Vol.22, No.1(June 1995), pp.11-19.

8) 송준용. "의학도서관 간 외국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한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2001. 8)

교가 안될 정도로 값비싼-학술잡지 종당 200만원이 넘는-Elsevier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잡지는 한국에서 광역권 도시별로 10개 정도만 구독하고 나머지 기관은 상호대차를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논리상으로는 쉬우나 기관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서관간의 공조체계를 이루어 예산적으로 압박을 받는 문제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3. 의학 전문사서의 육성

의학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주제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노동청에서 인정한 27개 전문직 중에서 사서직(librarian)과 의무기록 관리자(Medical Records Administrator)는 의사와 같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비교할 때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배려 등을 감안할 때 사서의 대우 수준이 의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MLA(Medical Library Association : 의학도서관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의학사서직을 지망하는 이유는 높은 임금(초봉 \$31,066, 평균임금 \$45,016)과 직업비전, 다양한 근무장소(병원, 건강센터, 의학정보센터, 기업, 특수도서관 등), 다양한 업무, 환자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간접적인 역할, 교육과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낮은 퇴직율 등의 이유로 의학사서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그만큼 대우가 뒤따르고 있다.

의학주제 전문사서의 전문지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에서 일선에 근무하는 의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기초적 단계인 의학용어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1974년부터 현재까지 9회에 걸쳐 총 190명이 수강하였다.¹⁰⁾ 또한, 상명대 문헌정보학과에서 의학도서관에 관계되는 강좌(의학용어, 의학서지, 의학도서관 운영론)를 개설하여 주제 전문사서를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의학사서 자격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MLA가 추천하는 의학사서에 대한 기초지식은 의학용어, 해부학, 간호학 및 기타 관련학문, 전염병학 또는 생물통계학, 컴퓨터과학,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디자인 및 검색, 웹디자인, 성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① ALA가 인정하는 학교로부터 도서관 및 정보학 석사학위 취득자, ② 뛰어난 구어나 문어 커뮤니케이션, ③ 믿을 수 있는 대인기술, ④ 폭넓은 컴퓨터 기술, ⑤ 과학, 의학, 의학관련 학문 전공 혹은 경험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Medical Library Association, "Jobs", http://mlanet.org/jobs/jobs_tx_ca.html (2002. 11.10)

10)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의학용어강좌", <http://www.kmla.or.kr/>(2002. 11. 20)

의학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① 의학정보를 검색, 선택, 조직, 배포하는 능력 ② 최신정보과학을 평가하는 능력 ③ 의학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하는 최종이용자를 교육하는 능력 ④ 교육적 목적으로 콘텐츠를 개발,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능력 ⑤ 프로그램, 서비스를 계획하고 예산을 짜며 운영하는 능력 ⑥ 디자인검색과 콘텐츠를 개발,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능력 ⑦ 복합적인 학문을 다루는 팀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⑧ 기술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⑨ 문어와 구어 모든 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등에 관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¹¹⁾ 의학사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의학전문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직을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에서도 한국도서관협회나 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관련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일정기간 의학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람에게 의학사서 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의학사서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국립대학의 경우 의학사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과 같은 인사교류로 인하여 업무를 익히기 빠르고 전문성도 없어지게 된다. 사서직이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국립대학의 경우 직제를 교육전문직으로 개편해 줄 것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사서나 초·중·고등학교 사서교사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인바 교육부내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교육직렬-장학사, 연구사와 같은-에 속하면 사회적인 대우나 처우가 개선되리라 본다.

3. 국가문헌 보존도서관 설치

학술잡지의 증가에 따르는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자료의 보존에 있어서 도서관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학술잡지의 부족과 과월호잡지의 공동보존을 위하여 미국에서 도서관간에 구성된 JSTOR(Journal Storage)과 같은 조직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JSTOR은 오래된 학술잡지의 보존에 따르는 공간 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1995년 8월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총 947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이 단체의 기본개념은 학술잡지의 과월호를 전자형태로 변환하여 일정한 공간에 저장하고 동시에 학술잡지 목차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의 구성은 학술잡지의 구독료 상승, 예산부족, 이용자들의 요구 증가로 인하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결성된 조직이다.¹²⁾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의학도서관은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과월호 잡지부터 원본을 이미지파일로 구축하고, 자료는 공동·보존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점점 늘어나는 학술잡지의 제본도서 때문에 의학도서관 장서수장공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기관의 필요성은 도서관들이 처한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것

11) Medical Library Association, "Career Exploration Find Out What it Takes to Become a Medical Librarian!", http://mlanet.org/career/career_explore.html(2002. 11. 20)

12) JSTOR, "The History of JSTOR", <http://www.jstor.org/about/background.html>(2002. 11.10)

이다; ① 구독료 상승: 특히, 과학분야에서의 구독료 상승으로 단행본이나 기타 자료의 구입이 줄고 있다. ② 예산부족: 예산삭감으로 많은 도서관들이 저널구독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③ 이용자들의 요구 증가: 이용자들은 점점 더 많은 자료를,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한다. ④ 공간 부족: 잡지 수의 증가와 매년 출판되는 잡지 페이지의 증가로 도서관은 공간부족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서들은 별치 서가를 위해 저장장소를 넓히거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고 도서와 잡지를 별도의 장소에 옮기는 것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4. 의학전문정보센터의 설립

우리나라에도 의학정보와 관련된 전문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다. 각 기관별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통합정보가 없어서 이용자는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복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의학도서관계를 리더하고 교육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로서의 중앙기관이 필요하다. NLM의 장기발전계획(1998)은 3개의 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첫째는 세계 건강관련 지식의 강화와 확장검색, 둘째는 생의학 지식과 그에 대한 새로운 노선의 그림, 셋째는 국제적 사절단 NLM으로서의 역할을 내세우고 있다.¹³⁾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체제는 센터를 통한 서비스 체제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의학분야 주제는 일반주제와는 달리 폭넓은 학문을 다루고 있으며, 정보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바 의학정보만을 취급하는 국가적인 정보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

1) 의학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에 의학도서관의 대표기관을 설립하여 사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종합화, 자료의 공유체제구축, 상호대차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대표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의학관련 연구자가 외국의 문헌에 관해서는 MEDLARS를 통해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으나 국내문헌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어렵고 그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으로 접근이 어렵다. 즉, 한국에서 발행되는 의학정보의 통합적인 의학전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학관련 학술지를 어떤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납본체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서

13)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U. S. "A global vision for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Long Range Plan", Pre-Publication version(July 1998)

는 정보원을 쉽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의학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 Korean Index Medicus, 국회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회도서관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 산업기술정보원에서 발행하는 Korean Medical Abstracts 등이 있는데, 너무 산발적이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복투자로 인하여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세계적인 의학 전문 데이터베이스인 MEDLARS와는 너무 비교가 안될 정도이다. MEDLINE은 4,600여종의 학술잡지에 대한 기사색인이 1,100만 건이나 되며, 이중에 3,090종은 출판사와 전자잡지로 연결되어 있다. 이용자를 위하여 편리한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1997년 6월 26일부터 무료로 PubMed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국내에는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각 기관이 산발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4>은 의학분야 기사색인을 탐색할 수 있는 기관별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한 것이다.

<표 4> 기사색인DB 국내현황

DB명	운영기관	건 수	종 수	특 정
RiCH	보건연구정보센터	5,000	100	잡지명 중심
MedRIC	의학연구정보센터	200,000	500	한글
KoreaMed	대한의학회	14,511	69	영문
Korean Index Medicus	영실시스템	9,150	181	초록 없음, 영문
MEDLIS	서울대 의학도서관	13,000	99	한글
Riss4u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800,000	1,000	외국문헌중심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9,371	130	외국잡지중심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국회도서관	1,281,749		초록 없음, 한글

NLM에서는 1965년 이후 40여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안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세계적인 DB로 발전될 수 있었다. 이 통계를 보면 1965년부터 색인작업을 기계화를 시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2백만 건이 넘는 논문의 인용문헌을 색인화 하였다. 미국의 경우 특수주제인 의학, 교육, 농업분야에 한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도서관이 있다. 아래의 NLM의 색인통계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 5〉 Indexing Statistics: 1965-2000

연 도	Index Medicus에 색인된 잡지종수	MEDLINE에 등재된 잡지종수	MEDLINE에 추가된 인용 문헌수
1965	2,241	--	151,635
1970	2,251	--	210,000
1975	2,353	--	220,800
1980	2,661	--	266,730
1985	2,730	--	307,333
1990	2,973	--	391,172
1995	3,147	3,823	392,354
2000	3,472	4,332	442,000
합 계	21,828	8,155	2,382,024

이중에서도 국립의학도서관은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 만큼 의학정보를 국가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여 육성하고 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미국 보건교육후생부 산하 기관인 국립보건원의 하부 기관으로서 미국 NLM에는 세계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각국의 의학관련 자료가 비치되어 있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있다. 종합서지사항의 색인화 작업이 필요하며 MEDLARS에 등재할 필요성이 있다. 그에 대한 목적은 한국 내에서 발행되는 의학관련 잡지의 정보를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993년도에 MEDLINE에 등재된 총 논문 368,145건 중에서 한국인 논문 수는 437건으로 전체 중 0.12%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학술적 가치가 적다기보다는 홍보의 부족과 연구자의 노력의 부족과 색인작업의 부진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의학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

미국 NLM에는 NN/LM이 구축되어 있고, NLM이 이를 직접 관장한다. 이 조직이 하는 일은 지역정보센터간의 역할분담을 정하고 협력조직을 조정 관리하고, 전산자원 지원을 포함한 각 지역센터들의 장비, 인력, 기술의 취약성을 보충해주고 의학도서관에 자문역할을 둔다.

NLM의 기능은 4,500개 병원도서관, 140개 의과대학도서관, 8개 지역 도서관(Regional Medical Library)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40여 개의 보건의료관련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MEDLARS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조직은 1998년 9월 30일 현재 직원 576명, 1999년 예산 \$181,000,000, 장서수 5,330,000책, 잡지 22,200종이나 된다. 세계 각 지역 또는 국가에 설립된 국제 메들라스센터는 미국 NLM이 지정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22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립 기관은 1국가 1기관이 원칙이며, 국공립기관에

한하여 설립하여 주고 있다. 미국 NLM의 기능 가운데 MEDLARS시스템은 연구, 환자 진료, 교육 및 기타 생명 과학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주요 문헌 정보를 전산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컴퓨터에 의해 정보를 관리하기 시작한 효시라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색인된 내용을 이용자가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MEDLARS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1965년부터이다. 그리고 서지적 참고 자료(bibliographic reference)와 아울러 최근에는 원문 제공 자동화시스템인 DOCLINE을 이용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그리고 국제 메들라스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각 국가에서도 원문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능 및 서비스는 MEDLARS D/B를 이용하고, DOCLINE을 통한 원문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최신 의학정보 제공, 국제 수준의 상호대차가 주목적이고, MEDLARS D/B 검색 기법, 이용자 교육 및 훈련, 전문 요원(사서) 교육 및 훈련 등 교육훈련도 그 역할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의학분야에 대한 전문학술정보센터가 없다.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내 한국메들라스센터(Korea MEDLARS Center)는 미국 NLM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역할은 DOCLINE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충북대 의학연구전문정보센터, 전남대 보건연구정보센터 등이 있지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국가적인 지원도 산발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의 육성이 필요하다.

5. 상호활용 체제의 발전

현재 국내에서는 의학도서관협의회 등의 상호대차 규약에 의해서 MEDLIS를 통하여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호대차가 서울지역내의 대규모 5개 대학으로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요청 받은 대학은 자관의 이용자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수집한 자료를 타관의 이용자 서비스 때문에 잉여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집중되는 3개 대학도서관은 복사 등으로 인하여 자료의 손상도 많게 되어 상호대차를 기피하게 되므로, 신청건수도 제한을 하게 된다. 또한 상호대차 수수료로 받은 요금은 서비스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인건비도 제대로 안되므로 상호대차를 위해서는 상당한 서비스정신과 인내가 요구된다. 또한, MEDLIS시스템도 개선사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종합목록에서는 서지사항의 부정확, 종합목록 추기의 비협조, 서지 교열의 지연들이 있고, 상호대차시스템에서는 상호대차 처리의 지연, 상호대차 담당자의 불친절, 신청서 작성시 기재사항 누락, 상호대차의 특정기관 집중화, FAX신청 요금의 고가, 개인연구자의 접근불가, 해외 상호대차 의존률의 고비율, 과도한 신청 등이 있다. MEDLIS 운영환경에서는 기능개선의 신속한 대처 지연, 기능부족, 사용법의 어려움, MEDLIS처리시간 지연, 불명확한 신청서의 반려기능, 참고질의 응답의 지연, 이용자 서비스 전담인력의 부족 등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MEDLIS의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목록분과위원회를 가동하여 협동목록의 표

준화를 기하고, 비 협조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상호대차 담당자의 교육, 특정 기관에 대한 신청전수의 제한, 인근지역간의 우선 해결(권역별 단계적 신청), 긴급하게 필요한 잡지의 처리방안 강구(24시간내), 대학도서관의 병원도서관에 대한 지도적 역할 수행, 센터의 설립으로 국고확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통합 시스템의 홍보, 시스템의 성능개선, 전담직원 배치가 필요하다.

6. 학술잡지의 체계적 평가와 전자출판

의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잡지를 예산이 부족하여 구독중단을 해야 될 때나 예산이 증액되어 신규로 구독을 추가할 때 대상잡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대부분 관련학과의 교수에게 의뢰하여 선정하거나, 이용률, 상호대차의 빈도 수에 의해서 선정작업을 하지만, 상세한 잡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협동수서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자에게 양질의 잡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MEDLINE의 학술잡지 품질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MEDLINE에 등재되는 잡지 선정방법은 잡지를 평가하고 양질의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헌선정 기술 평가위원회(Literature Selection Technical Review Committee(LSTRC))가 설립되어 있다: ① 내용, ② 편집과정, ③ 출판형태, ④ 이용자 ⑤ 내용의 형태 등이 평가되어 포함된다.¹⁴⁾

Rousseu(2002)는 학술잡지 품질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① 표준화된 원고의 접수(새로운 과학적 정보에 기초한 결과물, 재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 적절한 조정, 데이터의 통계적 취급), ②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고른 분포의 학계로부터 구성된 편집위원회 유무, ③ 비평적 평가능력을 가진 편집자, ④ 신속한 출판, ⑤ 대규모 초록과 색인서비스에 포함, ⑥ 과학자들이 쓰고있는 내용에 있어서 높은 신뢰수준을 가지고 있는 잡지의 논문 출판, ⑦ 다른 잡지에서의 인용빈도, ⑧ 영문요약이나 초록 유무, ⑨ 저자의 주소의 유무, ⑩ 완전한 서지정보원의 제공¹⁵⁾

이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잡지의 품질평가 과정을 거쳐서 학술잡지의 선정 및 구독중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학술잡지의 평가기준을 JCR SCI(Journal Citation Reports/SCI)의 Impact Factor를 참고하여 정하고 있으나 참고자료가 될 뿐이고 결정적인 선정 요인으로 정하기에는 어렵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국내에서 발행하는 의학 학술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학회지가 얼마나 인용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한의학회가 한국의학학술지 69종의 인용정보인 KoMCI(Korean Medical Citation

14)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Journal Selection for Index Medicus/MEDLINE", <http://www.nlm.nih.gov/pubs/factsheets/jsel.html>, (2002. 11.10)

15) Rousseau R, "Journal Evaluation : technical and practical issues", Library Trends, Vol.50, No.3(Win 2002), pp.418-439

Index)를 발간한 바 있다.¹⁶⁾

학술잡지의 선정과 구독중단에 고려해야될 요소는 외적인 출판상태. 내용상의 학술적인 가치, 지명도, 잡지가격, 이용률, 출판경향, 기관내의 연구동향, 구독했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표를 만들어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V. 결 론

의학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정보관리체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정보가 점점 증가하다보니 특성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학술잡지의 고가화, 외국잡지의 선호, 학술잡지 가격의 높은 인상률, 학술잡지 증가에 따르는 자료정리 체계 정비, 전자잡지와 인쇄잡지의 중복구입에 따른 과부담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결정문제, 과월호의 증가에 따른 공간확보문제는 의학도서관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풀어야할 과제이다.

의학분야의 전문지식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주제전문 사서의 육성문제, 국내 의학분야의 통합데이터베이스가 없음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외국의 데이터베이스에만 의존해야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 학문분야의 광역화에 따라서 의학정보가 점차 증가하는데 대한 정보를 수집·축적·가공하기 위한 전략 등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의학도서관에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투자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분담수서로 국내소장 외국학술잡지 확보율을 최대화한다. 또한 국내 의학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자료에 대한 종합서지정보센터가 필요하고, 국내정보를 외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국내정보를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한국메들라스센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센터의 국가적인 육성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의학정보를 소장하는 도서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자료부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기간호의 증가에 따르는 관리비용 과다, 도서관의 공간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의학정보 자료보존센터를 설립하여 자료를 공동보존하고, 저작권이 지난 과월호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체제마련이 시급하다. 셋째로, 국내 서지정보시스템의 통합의 필요성 등은 도서관간 협력운영체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학전문정보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정보센터에서 의학정보에 대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상호대차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의학도서관에 제공하고, 국내정

16) 대한의학회, "komci", <http://komci.kams.or.kr/>(2002. 11. 10)

보를 외국에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의학도서관도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제로 개편하여 일반인 모두 의학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넷째, 의학전문 주제사서의 부족은 미흡하나마 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의학사서자격 증제도를 마련하여 교과과정을 만들고, 교육방법은 대학에 위탁교육 등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학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가 자기계발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과제는 전자저널의 미래에 대한 것이다. 전자정보기술 이용운동으로 사서들은 새로운 기술습득과 전자저널의 참고봉사를 위한 재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거의 모든 주요도서관들이 컴퓨터시설을 갖추고 이용자가 전자정보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연결하였다. 그러나 사서들은 전자정보를 만들어 미래의 이용자가 주요 학술잡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해야 할 것이며 수천 가지의 전자적 환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참고문헌

- Alexander, Adrian W. "Toward "the perfection of work: library consortia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28, no2(1999) pp. 1-14.
- Butler, Meredith A. "The economics of resource sharing, consortia, and document deliver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26, no1-2(1998) pp.137-43.
- Morse, David H.; Clintworth, William A. "Comparing patterns of print and electronic journal use in an academic health science library (computer file)." *Issues in Science & Technology Librarianship*, no.28(Fall 2000)
-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U. S. "NLM Director Testifies on FY 2001 Budget", <http://www.nlm.nih.gov/od/fy2001testimony.html>(2002. 8. 5.)
- Sittig, Dean F. "Use of fuzzy set theory to extend Dhawan's journal selection model: ranking the biomedical informatics serial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v.87, no.1(Jan. 1999). pp.43-49
- 송준용. "한국 의학도서관의 제 문제", *디지털도서관*, 통권 13호(1999년 봄호), 디지털도서관포럼
- 양승옥, "의학정보네트웍에 관한 소고", *한국의학도서관*, vol.19, no.1(June, 1992). pp.7-16
- 윤봉자, "한국 의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한국메들라스센터, <http://solarsnet.snu.ac.kr/medlib/index.html>(2002. 8. 5)